

## 신방과 교수들이 학교에 신문사를 차렸다고?

경성대학이 만든 언론사 <시빅뉴스>... “경쟁력 만들어 주는 게 목표”

13.05.29 16:30 | 최종 업데이트 13.05.29 16:30 | 정민규(hello21)



▲ 27일 오후 부산 남구 경성대학교 내에 위치한 학교기업 <시빅뉴스>에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정민규

지난 3월 <시빅뉴스>라는 새로운 인터넷 언론사가 부산시청에 등록을 마쳤다. 별스러운 일이 없는 신생 언론사의 탄생이 특이하게 다가온 건 이 회사가 생겨난 이유 때문이다. 이 회사는 발행목적을 ‘기자교육’과 ‘고용창출’이라고 적어놓았다. 언론사도 기업인만큼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뒷전인 모양이었다.

회사의 주수도 특이했다. 회사는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대학교 안에 위치해 있다. 의문은 이 학교의 신문방송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정태철 교수의 설명을 들은 뒤에 풀렸다.

“의대는 교수가 의사고, 부속병원은 학생들의 실습장이죠. 로스쿨도 비슷한 식으로 법조인을 키워냅니다. 신문방송학과도 기자와 PD 출신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운 걸 부속 언론에서 실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 교수를 비롯한 경성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들의 이러한 의문은 새로운 언론사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모였다. 그렇다고 기존의 대학 내에서만 유통하는 학보사와 같을 수는 없었다. 새롭게 제대로여야 했다. <시빅뉴스>라는 제호에 머리를 맞댔고, 시와 세무서에 등록과 신고를 마쳤다. 이런저런 시설을 만들고 구비하는데도 3억 원 가량의 돈이 들었다.

그렇게 탄생한 곳이 <시빅뉴스>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뉴스룸이다. 27일 오후에 찾은 경성대학교 문화관에 위치한 뉴스룸 안에는 학생들이 바글거렸다. 마감 시간 직전의 언론사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학생들 틈에는 교수들도 섞여있다. 북측으로 만들어진 깔끔한 인테리어는 보기에 따라 드라마 세트장 같기도 했다.

### 학생이 기자가 되고, 교수가 데스크가 되는 회사

이 곳을 들어서는 순간 경성대 신문방송학과 학생은 기자가 되고, 교수는 데스크(통상 부장급 기자를 의미)가 된다. 그렇다고 모양만 그럴 듯한 ‘기자놀이’를 하려는 게 아니다. 학생들은 카메라를 들춰 데고 어디론가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고 컴퓨터 앞에 앉아 기사를 쓰는 학생 기자들의 눈빛도 매서워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열정도 데스크가 된 교수들에게는 아직 허점투성이다. ‘Don’t eat the marshmallow (마시멜로를 먹지 말지 마라)’라는 문구가 여기저기 나붙은 뉴스룸에서 교수들은 달콤한 마시멜로 같은 말 대신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결과물이 괜찮은 듯 보이는 데도 편집인을 맡고 있는 강성보 교수는 “학생들이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따라온다”고 연신 고개를 가로 젓는다. 언론사 논설위원을 지내기도 한 강 교수는 “내가 볼 때는 아직 학생들이 신문 문장에 완전히 익숙하지 못하다”고 학생들의 글에 합격점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는데 악역을 자처한 교수들은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한 정태철 학과장은 “미주리 대학은 대학저널리즘이 공중파의 지역 네트워크로 참여할 만큼 언론으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그러한 방식을 통해 연수와 수습이 필요없는 완벽한 저널리스트를 만들어내고 있고 언론사에서는 우수 학생들을 모셔가기 위해 인사 담당자들이 찾아올 정도”라고 말한다.

정 학과장은 “학교에 다닐 때는 <시빅뉴스>에서 실력을 키우고, 졸업 후에도 1~2년 경력을 더 쌓을 수 있을 수 있게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때문에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금도 전액 졸업생을 기자로 고용하는데 사용한다.

### 취재처 확보는 어려움...“기존 언론과 차별화된 기사로 승부”



▲ 부산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이 27일 오후 <시빅뉴스> 뉴스룸에서 자신이 찍어온 영상물을 편집하고 있다.

© 정민규

학교 학생들도 과제로 끝나는 기사가 아닌 소비되는 기사를 쓰면서 자부심이 올라갔다고 말한다. 3학년인 이창호씨는 “출범 전에는 어리숙한 티가 나도 교수님들이 이해해 줬지만 지금은 기사를 검토하는 게 간간해졌다”며 불멘소리 하다가도 “학생 입장에서는 피곤해도 그만큼 <시빅뉴스>의 전문성은 올라갔다”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이씨는 이번 학기 동안 부산 지역의 마을공동체 등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다루어 볼 생각이다. 르포와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다. 그간의 취재에서 이씨는 “정말 기자는 아니더라도 기자가 어떻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후에 언론사에 입사해도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졸업생 출신 1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진현 기자도 어려움 속에서 성과를 얻고 있다고 말한다. 이 기자는 “학교에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것이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고 메이저 회사가 아니다보니 취재처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 기자는 “기존의 언론사가 바라 볼 수 없는 점을 찾아 승부를 볼 수 있다”며 “주민 밀착형 기사와 아래에서부터 훑는 저인망 취재를 통해 생생한 기사로 기존 언론사들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이 기자는 “<시빅뉴스>만의 역량을 키워 기존 매체들과 동등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3 OhmyNews

OhmyNews

# 2013.05.29 오마이뉴스